



# *Web Contents*

---



2024년 04월 28일 14시 20분



## 5월의 마지막 날에

2023.05.31 조회수 62 등록자 이주희

‘삼질’이라는 말은 ‘삼’이라는 말에 ‘파다, 뜨다, 뒹다, 퍼내다, 퍼담다’라는 술어를 동반하여 자신의 몸을 구부리고 낮추는 일이 됩니다. 한 삼에 한 삼을 더하는 막막하고 우직한 성실함이 배어있는 말입니다. 그러나 하루가 저물 듯, 우리도 저마다 고단한 연장을 벗어내듯 저물어가는 삶의 비애와 슬픔을 함께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. 흐르는 것들, 그리고 저물 수 있는 것들은 도리어 평화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. 그러므로 오늘도 흘러가는 이 시간들에 감사하며 5월의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보내도록 합시다^^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 문학산책0531.jpg (55 hit/ 765.8 KB) ↓ [미리보기](#)[목록](#)[이전글  
깔딱고개](#)[다음글  
진실을 실현하려는 의지](#)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